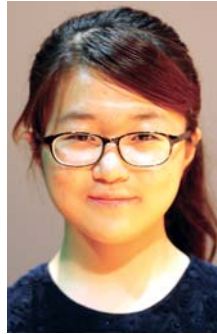


제57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영예의 얼굴

“여러 작곡가 음악 듣고 많이 배울 것”

“테크닉은 자신, 표현력 키우는데 주력”

국회의장상 바이올린 수피아여중 송해빈



문광부장관상 플루트 광주예고 서정민



“늘 애정을 갖고 가르쳐 주신 바이올린 선생님과 항상 기도해준 가족, 친척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깊이 있는 연습을 통해 더 훌륭한 연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막을 내린 제57회 호남예술제에서 드보르작의 ‘바이올린협주곡’을 연주, 최고상과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송해빈(16·수피아여중 3년)양의 소감이다.

송양이 바이올린을 시작한 것은 6살 때다. 피아노를 치다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엄마의 권유로 바이올린을 시작한 송양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때 최고상을 수상하고 난파공쿠르에서도 3위에 입상한 재원이다.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로고스켄버오케스트라와 ‘모짜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4번’을, 중학교 2학년 때 팔라디아 슈베르트 오케스트라와 부르흐의 ‘바이올린협주곡 2악장’을 협연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선생님들에게 소리가 예쁘다는 소리는 종종 듣는 편이에요. 근데 음정을 잡는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연주할 때 음악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 그런 몸놀림을 하는 게 어려워서 지쳐 많이 받았어요. 더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죠.”

아직 어린 나이로 다양한 작곡가의 음악을 들으며 한다는 송양은 짧게 공부해 아쉬움이 남은 생상스의 음악을 좀 더 열심히 배워보고 싶다고 했다.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는 안네 소피 무터를 꼽았다.

“요즘 사춘기라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음악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예고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해야죠. 앞으로 연주도 열심히 하고 음대 교수가 되고 싶어요.”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정민(18·광주예고 3년)양은 호남예술제에서 여러 차례 큰상을 수상했다. 중 3때는 최고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금상을 받았다. 올 제57회 호남예술제에서는 다시 최고상을 거머쥐었고, 각 부문별 최고상 수상자 가운데 선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도 함께 받았다. 경연 참가곡은 베버의 ‘마탄의 사수’였다.

“생각지도 않은 큰상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꿈이 많은데 고 3이다 보니 일단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첫번째 목표입니다.”

엄마가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덕에 어릴 때부터 음악과 친숙했던 서정민은 피아노를 치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플루트를 배우기 시작했다. 장래 희망을 플루티스트로 정한 건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처음에는 취미로 배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플루트 매력에 빠져들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플루트니가 아예 전공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반부패 국민운동 광주시연합회 창립기념식



사단법인 반부패 국민운동 광주시연합회(추진위원장·박길무)는 26일 동구 KT빌딩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 및 반부패 길기대회를 개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요양원 위문품 전달



창립 10주년을 맞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강형기)은 남구에 있는 요양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 활동을 했다.

서창농협 경로당 25곳서 봉사활동 실시



서창농협(조합장 배인수) 농촌사랑봉사대는 최근 근내 영농회 경로당 25여개소에서 효(孝)사랑 실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서창농협 제공)

목포유달초 늘푸름이합창단 목포역 공연



목포유달초등학교(교장 김남삼) 늘푸름이합창단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최근 목포역에서 세번째 공연을 가졌다.

함평경찰 해보파출소 농산물 절도예방 순찰



함평경찰서 해보파출소(소장 정중오)와 해보면 자율방범대는 최근 빈발하는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해 집중순찰을 실시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kwangju.co.kr

내일 ‘소록도 병원 음악회’

CJ문화재단, 김창완밴드 등 초청

김창완밴드(사진), 정원영밴드 등의 대중 음악인들이 28일 소록도에서 공연을 펼친다. CJ문화재단은 김창완밴드, 정원영밴드, 이정아, 바이바이밴드 등이 이날 오후 1시30분 고



흥군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환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소록도 병원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공연은 CJ문화재단의 신인 뮤지션 지원사업 ‘튠업(tune up)’이 발굴한 신인 음악인들과 이들을 응원하는 선배 음악인들이 ‘튠업 우리음악여행’이란 타이틀로 소외된 지역을 찾아 음악 재능을 나누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날 김창완밴드는 관객의 연령대가 70세 이상임을 고려해 새롭게 편곡한 ‘아리랑’ 등 관객들이 쉽게 공감할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 포헤르츠, 마호가니킹 등의 신인 음악인들은 27~28일 고속도로 휴게소와 소록도 곳곳에서 소규모 버스킹(길거리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앞서 ‘튠업 우리음악여행’ 팀은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 제주 애월초등학교, 평창 동부 오리 마을 축제에서 공연한 바 있다. /연희뉴스

“저출산 해결 급선무는 직장내 워킹맘 배려 문화”

최희주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목포서 강연



“대한민국은 얼마전 인구 5000만명을 돌파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명이라는 소위 ‘20·50 클럽’에 가입한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가정 균형 전남 CEO포럼’ 강연자 목포를 찾은 최희주(47)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경제발전은 인구문제로 귀결되고 인구 문제는 결국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워킹맘이 일과 가정

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옛날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워킹맘은 여전히 남성중심의 가정과 직장문화에 처해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여성 취업률 그래프를 보면 20대에 상승했다가 30대에 하락한 뒤 40대에 다시 상승하는 ‘M 커브’형태를 띠다”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지 못해 생긴 결과로 4~5년의 경력단절을 낳는 주요 요인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육아휴직제도 등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구비돼 있지만 직장의 눈치를 보느라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면서 기업들이 앞장서서 이런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광주은행을 꼽았다. 광주은행은 육아휴직 사용자를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는 등 워킹맘을 위한 배려의 문화가 좋다고 설명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실천 방안으로 ▲의무적인 회식자리를 줄이고 ▲대화를 나누며 ▲정제적으로 가정의 날을 정해 정시 퇴근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영양실천의 최 실장은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행사 30회로 보건복지부에 진출한 후 연구아동정책관과 건강정책국장을 거쳐 지난 3월 1급 실장에 오른 호남의 대표 주자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농어촌공 박재순 사장, 인니 방문 농업시설 지원 약속



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농업기반시설 사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은 최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농업기반시설 사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사장은 “인도네시아 농업개발 분야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지역의 커다란 젓줄이 될 거라던 댐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공사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출범한 해외농업개발협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는 박 사장은 현재에 농업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이승용(광주하남산단 부장)·호명순씨 장남 성호군 흥중동·김효성씨 장녀 윤지양=30일(토) 오후 1시 20분 광주수아비스웨딩홀(구 경복궁) 1층 로즈홀.

중친회

▲광산이씨 필문회(회장 이태교) 월례회 및 교양강좌=7월 4일(수) 오후 6시 30분 화랑궁회관 062-224-1800.

알림

▲지적장애인의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

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 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 시설 및 유관기관등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저리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팔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 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모집

▲동그라미 언어학센터=언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그룹치료 및 검사 평가 월~금(오전 9시~오후 7시), 토(오전 9시~오후 2시) 남구 대남대로 113(2층) 062-433-5559.

▲김승덕 작악 연희놀이 수강생=폼바놀이(장타령, 각설이 타령, 장구 북)·한국무용(기초무, 살풀이, 승무, 한량무) 주 1회반·주 2회반(월~금) 오전 10시, 오후 2시 야간 7시 택1 062-228-4340, 010-3620-4341.

▲린즈공예전문학원=각종 도자기, 컵, 접시, 공기그릇, 대접, 핸드페인팅, 포셀핀페인팅, 세라믹페인팅, 포크아트, 체질학습, 취미반, 창업반, 전문가 과정 수시모집. 062-251-5559, 010-2665-6440.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 (무료강의), 서방시장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축구회원은 추구를 통해서 친목도 도모하고 활기찬 여가운동을 하고자하는 20~50대 축구회원을 모집, 매주 토요일 오후 운동동인조구장 010-9604-1681(신찬수).

▲이화숙유치원=친환경고급자재 사공(편백나무 교실, 강당, 요리실습실, 사계절 수영장) 5~7세 유아 수시모집. 진월동 리재 3차 아파트 옆 062-367-0851~3.

▲광주 콘서트마티에솔루션 수강생=어린이 성악, 보컬트레이닝, 음대 및 예고 입시교육, 이태리와 독일가곡, 한국 가곡교실 등 배우실 분. 010-9007-2355.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창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어린이재단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동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이미용봉사·풍선아트·도서관리·각종 프로그램 진행 가능자 062-228-1365.

부음

▲은희선씨 별세 성만·경수·미경씨 부친상=발인 28일(목) 무등장 레식장 102호 062-515-4488.

▲김 규씨 별세 윤호·윤진씨 부친상=발인 27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삼가 故인 冥福을 빕니다 弔

<p>故 최만중 님(남/76세)</p> <p>子/子婦: 최태현 / 태수 / 임준순</p> <p>孫: 최수경·수민</p> <p>• 호실101호</p> <p>• 장지:영락공원</p>	<p>발인:6월27일</p> <p>• 연락처:227-4385</p>	<p>故 정동철 님(남/68세)</p> <p>未亡人: 김금옥</p> <p>子/子婦: 정준희 / 이영주</p> <p>女/婿: 정주희 / 최준현, 준연 / 김태호</p> <p>• 호실102호</p> <p>• 장지:영락공원</p>	<p>발인:6월28일</p> <p>• 연락처:227-4386</p>
<p>故 박귀례 님(여/95세)</p> <p>子/子婦: 김병기 / 정순남 / 박복순</p> <p>병들 / 정미숙, 병일 / 지정은</p> <p>女/婿: 김영금 / 김영호</p> <p>孫: 김경희, 경관, 원재, 대환</p> <p>• 호실201호</p> <p>• 장지:영락공원</p>	<p>발인:6월29일</p> <p>• 연락처:227-4381</p>	<p>故 문귀식 님(남/81세)</p> <p>子/子婦: 문병자 / 홍현단, 태철 / 김미숙</p> <p>女/婿: 문 경 / 정병진, 정희 / 전세영</p> <p>명순 / 오원록</p> <p>• 호실401호</p> <p>• 장지:대전현충원</p>	<p>발인:6월28일</p> <p>• 연락처:227-4383</p>

마음까지 편안한 **참금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